

같이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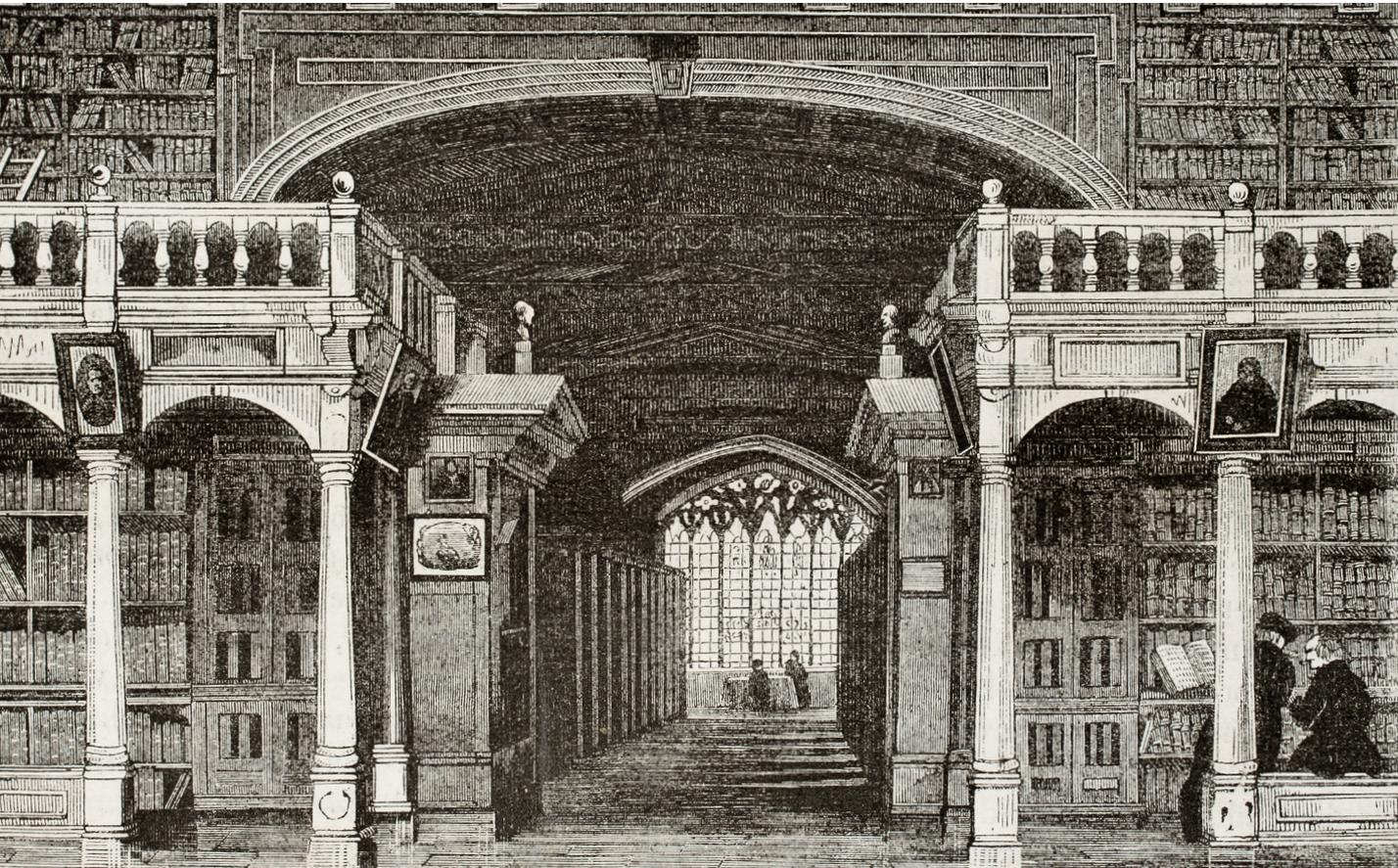
: 역사에 길을 묻다

『율리시스』와 『호밀밭의 파수꾼』. 전혀 접점이 없을 것 같은 이 두 작품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시대에 길이 남을 명작이라는 점과 함께 당시에 '금서'로 지정이 되었다는 점이다. 시대 상황과 굽힐 수 없는 가치들을 담아내어 금서로 탄압 받으면서도 살아남아 길이 남을 명작이 된 고전들을 살펴본다.

글 편집실

시대의 그림자를 비추는 거울

금서書





《틸리리 궁전의 습격》
장 뒤플레시 베르토

루소와 같은 중세 계몽사상가들의 금서들은 시민들의 서재로 파고들었고, 프랑스 혁명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 그림에는 툴리르 왕궁으로 진격하여 루이 16세 퇴위를 요구하는 모습을 담았다.

권력자들의 도구, 금서

과거, 권력을 가진 자들은 언제나 사상에 대해 검열을 했다. 특히나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권력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권위와 기득권에 반하는 사상이 담겼다고 생각되는 책들을 ‘금서’로 정하고 강력



《진시황의 분서갱유》 작자미상

진시황 시대 금서를 분서하고 유학자들을 파묻어 죽인 분서갱유를 묘사하고 있다.

하게 통제하여 그 시대의 이념과 질서에 도전해서 자신들을 위협하는 것들을 탄압했다. 그렇게 금서가 된 책들의 말로는 불태워지는 것이었다. 가까운 중국을 보면 금서를 불태워 온 오랜 역사를 들여다볼 수 있다. 중국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문화방화 사건은 진시황의 분서갱유(焚書坑儒)로 진나라 승상(丞相) 이사(李斯)의 주장을 진시황이 허락하여 단행된 사건이다. 이 분서갱유는 농서 같은 실용서와 진나라 역사를 기술한 책을 제외하고 사상과 관련된 책들을 모두 불태우고 수백 명의 유생들을 생매장하였다. 이는 정치 비평을 금하기 위한 일종의 탄압 정책이었던 셈이다.

유럽에서는 16세기 중반, 로마교황청은 ‘금서목록’을 통해 가톨릭 교리와 믿음에 반하여 신자들의 신앙과 도덕에 해악을 끼친다고 판단된 책 4천여 종과 저자 2,400여 명을 발표했다. 재미있는 사실은 1948년 이 ‘금서목록’의 마지막 판본인 제 12판이 발행되었는데, 이 목록을 살펴보면 정말 음서(淫書)라고 불릴만한 작품들은 엄격하게 제약

하지 않았고, 대부분 교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작품들이 열거되어 있다는 점이다. 결국, 금서라는 명목하에 가톨릭교회와 교황청의 위신을 지키는 '위해 금서' 조치를 시행한 셈이다. 현대에 들어서는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가 분서만행을 일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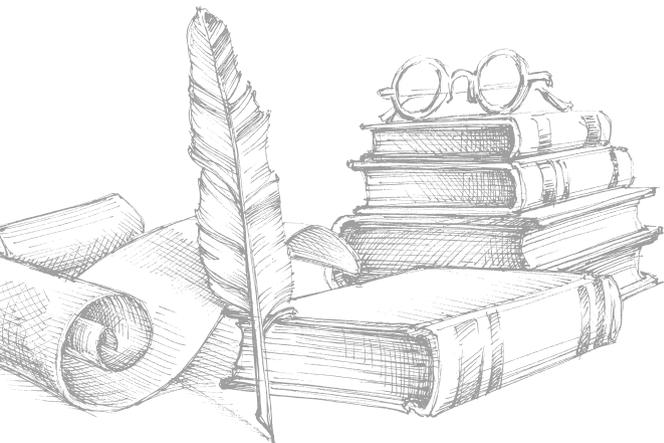
우리나라의 경우 조선은 사상 통제는 엄격했지만, 금서 조치인 분서(焚書)와 휘판(毀板)을 나라 차원에서 주도한 사례는 보기 드물다. 숙종 때 노론 측의 공격을 견디지 못하여 소론 측 최석정이 편찬한 『예기유편』의 분서와 휘판을 승인했는데, 이것은 앞서 유럽이나 중국에서 일어난 금서 조치와 달리 당쟁으로 멀쩡한 책을 분서와 휘판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진정한 의미의 금서 조치는 일제 강점기에 이루어졌다. 1910년 한일 강제병합 이후 초대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는 조선의 학교, 책방, 개인 집을 수색해 51종 20여만 권의 책을 압수해 불태웠다. 이 분서 사건은 '애국장서회 진'이란 이름으로 단행되었는데, 이후 대대적인 금서 조치로 단행본 출판을 철저히 막았다. 그리고 이 분서는 1911년 8월 대일본 제국에 충성하는 신민을 길러내겠다는 취지가 담긴 '조선교육령' 발표로 이어진다. 결국, 금서 조치는 조선교육령이 의도하는 '우민화(愚民化) 정책의 시발점이

있던 셈이다.

이렇게 인류의 기나긴 역사 속에 자행된 여러 금서 조치는 수많은 책들에 낙인을 찍고, 태우고, 파묻고, 파괴했지만 그 책들에 담긴 여러 사상과 이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살아남아 오히려 현대에 들어서는 그 사상적·예술적 가치를 인정받고 인류의 문화유산으로, 명작으로 살아남았다. 왜냐하면 금서 자체가 낡고 병든 사회와 앞으로 나아가려는 사람들 사이에 치열하게 벌어진 투쟁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금서, 시대를 견인하다

어떤 책이 금서가 되는 이유는 시대별로 상황별로 다양했다. 권력층에 대한 비판과 풍자, 종교 비판, 자유로운 사상에 대한 통제, 풍기 문란 등 수많은 이유로 여러 책들이 금서라는 낙인이 찍혔다. 그 예로 장 자크 루소의 『에밀』(1762년)을 들 수가 있는데, 지금은 교육 지침 도서로 추천 도서 목록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이 책은 1762년 출간과 동시에 로마교황청의 금서목록에 올랐다. 프랑스의 사상가이자 문학가인 루소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것, 가지고 태어난 원래의 선한 본성대로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내용의 교육법을 이 책을 통해 주장했는데 이 점이 당시 종교와 사회 제도에 대한 반항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다른 이유로 독일 문학 최초의 베스트셀러인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도 한 때 금서로 지정되었다. 자살을 옹호한다는 이유에서였다. 현대로 넘어와서는 1980년대 말 발표된 살만 루슈디의 『악마의 시』가 순식간에 이란을 비롯한 이슬람권 나라들에서 금서로 지정되었다. 이란에서는 작가가 참석하지 않은 재판을 열어 사형선고를 내리기도 했다.



우리나라 조선에서는 당시 분서와 훼손의 경우는 적었지만 금서로 지정된 책들은 있었는데, 조선 후기 나라의 멸망을 예언했다는 이유로 금서가 된 『정감록』과 구한말 당시 시국에 저촉되다는 이유로 금서가 된 『조선책략』, 『금수회회록』이 그것이다. 해방 후에도 저자가 북에 있다는 이유로 『백석 시집』이 금지되었으며, 부패한 독재 정권을 질타하여 금지된 김지하의 『오적』, 빨치산의 역사에 대한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논란이 된 조정래의 『태백산맥』 등은 군사정권 시절 수난을 당했다. 한마디로 권력을 비판하거나 이념적 색채가 강한 책은 모두 금서로 묶인 것이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1987년 이후에는 국가보안법에 의해 사상자들이 여전히 제재를 당하기도 했다.

그 수많은 제재와 금지에도 불구하고 금서들은 살아남았다. 작가들이 펜 끝을 통해 시대의 아픔을 노래하고 사회 갈등을 풍자하며 악행과 부조리의 고발을 담아내고, 시대를 앞서나가면서 말이다. 그리하여 금서들은 세상이, 인류가 조금씩 앞으로 전진하는데 자양분이 되어주었다. 때문에 금서가 되었다가 다시 해금되는 과정은 시대의 투쟁이기도 하며 변혁의 과정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문명은 진보하고 발전했다. 여전히 금서는 현대에도 존재한다. 그리고 다음 시대로 가는 여정을 기다리고 있다. 🐣

고전의 또 다른 이름 당대의 금서



프랑스 혁명을 촉발시킨 국민영웅의 투쟁 『피가로의 결혼』

피에르 보마르셰 저 | 문예출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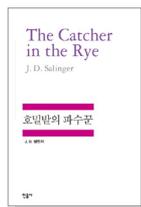
『세비야의 이발사』의 후속편으로 정치풍자와 심리 묘사를 더한 시민국이다. 주인공인 피가로는 상류층의 나쁜 세력과 맞서 싸우는 영웅으로 묘사된다. 이 작품은 프랑스 혁명을 몇 해 앞둔 시기의 사회 풍조를 담아 귀족들의 추악함을 꼬집고 있다. 국민들은 작품에 열광했지만 이에 위협을 느낀 왕실은 공연의 상연을 금지했다.



해학적 현대 서사시 『율리시스』

제임스 조이스 저 | 어문학사 펴냄

『율리시스』는 오디세우스의 모험을 그린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 속 영웅 오디세우스를 평범한 광고회사 직원이자 한 집안의 가장인 리오폴드 블룸이라는 인물로 재창조해냈다. 외설적이라는 이유로 미국과 영국 등 몇몇 국가에서 금서로 지정되었다. 20세기 위대한 작품으로 극찬 받고 있는 『율리시스』의 가장 큰 문학적 가치는 해학적인 현대 서사시의 형식으로 당시 사람들의 소설에 대한 일반적 인식을 완전히 변화시켰다는 것이다.



금지된 청춘과 소년의 고뇌 『호밀밭의 파수꾼』

제롬 데이비드 샐린저 저 | 민음사 펴냄

20세기 최고의 미국 소설로 손꼽히고 있는 『호밀밭의 파수꾼』은 16살 문제아 홀든 콜필드가 2박 3일간 가출을 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1951년 도서가 출간된 직후 미국 청소년들이 주인공의 옷차림이나 반항적인 말투를 따라 할 정도로 인기를 모았다. 그러자 미국의 다수 학교에서는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이 책을 금서로 지정했다.



새 세상을 꿈꾸는 민중들의 예언서 『정감록』

김탁 저 | 살림 펴냄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미혹하여 선동한다는 이유로 조선시대에 금서로 지목된 『정감록』은 민중들의 고달픈 삶이 언젠가는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바람이 구전으로 이어져 오다가 역성혁명론(易成革命論)으로까지 전이됐다. 현대판으로 출간된 이 책에는 『정감록』과 관련된 조선시대 및 근대의 사건 등 『정감록』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다.